

안산 대부동 지역경제, 내년엔 반등할까...회복 기대감 ‘술술’

부동산 시장에서 대부도 미세한 변화의 조짐 감지

안산시 대부동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터널을 지나며 내년을 기점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대부동 경제 상황은 계엄 이전에 비해 체감상 7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관광객 감소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커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곳곳에서는 내년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조심

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새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한동안 중단됐던 지역 사랑상품권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미세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아직 본격적인 매매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동안 거의 없던 매물 문의가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제 거래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

감이 먼저 반영되는 단계”라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은 지방선거가 예정된 해로, 각 후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SOC 확충, 관광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이 논의될 경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부동 지역경제가 내년을 기점으로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을지, 기대와 과제가 함께 교차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 겨울철 레포츠 공간 안산썰매장 개장



안산도시공사는 24일 겨울철 안산 대표 레포츠 공간인 안산썰매장을 열고 내년 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시민들이 안산썰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파크골프 대부구장,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 체육시설’로 주목받다

“파크골프를 치기 위해 대부도에 2박을 했는데 숙박비만 70만원이 들었어요.” 지난 21일, 파크골프 대부구장(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이 겨울 휴장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운영일에 만난 한 파크골프 마니아 부부의 말이다. 이 부부는 대부구장을 이용하기 위해 숙박은 물론 식사까지 대부도에서 해결하며 지역에 적잖은 소비를 남겼다. 돌아가는 길에는 옥수수편빵과 포도즙, 대부도 와인, 김 등 지역 특산물도 구입했다고 한다. 대부구장은 22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휴장에 들어갔지만, 이곳을 찾는 외지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발길은 대부도가 가진 관광·체육 자원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해당 부부는 “이제는 겨울철 운영이 가능한 충남 예산 파크골프장을 찾을 예정”이라며 “대부도 주민들은 이렇게 좋은 파크골프장이 있어 부럽다”고 말했다.

파크골프는 단순한 레저를 넘어 숙박, 음식, 특산물 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스포츠다. 대부구장을 중심으로 외부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실제로 파크골프 대회를 유치하거나 동호인 방문이 증가할 경우, 대부도는 ‘파크골프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지역에서는 내년을 대비해 안산시와 협의해 그린 일부라도 인조잔디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조잔디가 설치되면 주민 이용은 물론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각종 행사 개최에도 제약이 줄어들고,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는 문화예술 행사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어 스포츠 시설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고, 이미 수요와 경

제적 효과가 확인된 만큼, 체계적인 파크골프클럽 조직과 운영이 뒷받침된다면 제도적 개선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파크골프 대부구장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다. 대부도를 찾는 사람을 늘리고, 머무르게 하고, 소비로 연결시키는 지역경제의 ‘시금석’이다. 대부도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체육시설로서 파크골프 대부구장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할 때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일반 120m·유아 60m 레인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안산도시공사는 24일 겨울철 안산 대표 레포츠 공간인 안산썰매장을 열고 내년 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이날 문을 연 안산썰매장은 120m 길이의 슬로프 9개 레인과 60m 길이의 유아용 슬로프 4개 레인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매점과 물품보관함(100개), 수유시설, 고객휴게실, 탈의실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됐다.

썰매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부, 오후 2~5시 2부로 나눠 운영하며, 이용요금은 성인 7천 원, 청소년·군인 5천 원, 어린이(4~12세) 4천 원이다. 이용요금의 50%가 할인되는 20명 이상 단체는 평일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이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 보호자와 동반 입장해야 하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 중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를 할인한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시 입장 인원을 1천500명으로 제한하고, 입장객 현황을 공사 누리집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안산썰매장은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철에는 물썰매장으로 운영되며, 안산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시민도 즐겨 찾는 안산의 대표적인 레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진옥 공사 관광레저부장은 “이용객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겨울 안산썰매장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허가 없는 뺑뺑이 반입 대부북동 매립현장 ‘원상복구 미이행’ 논란

은 뺑뺑이가 다량 섞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시는 시험성적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민원 제기 이후 현장 확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

단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립토를 부분적으로 파내는 조치만 이뤄졌을 뿐, 문제가 된 뺑뺑이를 외부로 반출해 완전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화정식당**은 손맛에 정성과 마음까지 함께합니다.

화정식당과 함께 다양한 한정식 메뉴를 맛보세요.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27
032-883-3007
단체석 완비 · 예약환영

안산제일로타리클럽, 지구보조금 사업으로 연말 온정 나눔 실천

“연말에도 따뜻하게” 그룹홈에 고기·현금 지원

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산제일 로타리클럽(회장 문곡 배상모)이 연말을 맞아 지구보조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안산제일 로타리클럽은 2025~2026년도 지구보조금 사업(PG2684551)의 일환으로 그룹홈을 대상으로 한 물품 및 현금 지원 활동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했다.

이번 지원은 ‘연말 고기 400인분 나눔’ 사업으로, 함박웃음, 우리집, 만나복지원 등 관내 그룹홈을 방문해 고기와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특히 꿈의학교에는 현금 350만 원을 지원해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활동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안산제일 로타리클럽은 매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후원 활동을 이어오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사업 역시 연말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활하는 그룹홈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곡 배상모 회장은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가 가기 전에 그룹홈에 물품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병오년 붉은 말의 해인 내년에도 우리 로타리 회원들과 함께 더욱 의미 있고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산제일 로타리클럽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산제일 로타리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구보조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작은 손에 담긴 큰 사랑... 안산 어린이집 나눔 4년째 이어져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도복지회 안산시지부는 지난 12월 19일 안산시지부 사무실에서 ‘작은손 큰나눔 사랑의 저금통 전달식’을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또바기·일편단심, 나눔과 연대의 ‘2025 송년의 밤’ 개최

정기총회와 한부모가정 후원 함께한 따뜻한 밤

일편단심과 또바기가 함께하는 ‘2025년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22일 오후 7시, 한양대학교 ERICA 컨벤션 11층 에이드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또바기(회장 배종연)의 2025년 정기총회와 일편단심(회장 하태영)의 한부모가정 후원 행사를 겸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격려사와 축사, 회원 표창 및 각종 시상 등이 이어지며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한부모가정 후원 전달식과 함께 송년의 밤 행사가 만찬과 어우러져 훈훈한 분위기 속에 펼쳐졌다. 행사 중간중간에는 경품 추첨이 진행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행사에는 양문석 국회의원과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직접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전·현직 시·도의원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일편단심과 또바기가 함께하는 ‘2025년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22일 오후 7시, 한양대학교 ERICA 컨벤션 11층 에이드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행사를 마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또바기는 안산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위해 봉사 활동을 펼치는 단체이며, 일편단심은 회원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연 2회, 총 20가구의 한부모가정에 각 50만 원씩 후원하는 봉사단체다. 두 단체는 상호 협업을 통

해 봉사 효과를 배가하는 모범적인 단체로 잘 알려져 있다. 배종연 회장은 “여러 회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또바기가 있다”며 “내년에도 더 좋은 또바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하태영

회장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을 모아 1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아이들 저금통 전한 희망 장애인복지로 이어지다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도복지회 안산시지부(지부장 이동근)는 지난 12월 19일 안산시지부 사무실에서 ‘작은손 큰나눔 사랑의 저금통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안산 관내 시립 어린이집들이 참여해 아이들이 직접 모은 저금통을 전달하는 나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이번 전달식에는 시립 e-편한세상 상록어린이집, 시립 자이1차 어린이집, 시립 e-편한세상 선부어린이집, 시립 성포파크 어린이집, 시립 하나어린이집 등 5곳의 시립 어린이집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은 저금통을 직접 전달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다. ‘작은손 큰나눔 사랑의 저금통’은 어린 시절부터 나눔과 배려, 이웃 사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기획된 인성교육형 나눔 프로그램이다. 저금통 속에는 금액보다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이동근 지부장은 “아이들이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하는 경험에 매우 소중하다”며 “전달된 후원금은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지부는 감사의 뜻으로 학용품과 장난감 등을 각 어린이집에 전달했다.

출산율 감소와 사회적 관계가 약화되는 시대 속에서,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순수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희망과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봉사방문 감사합니다

△ 임격정 주연배우 정흥제



안산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서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안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관리 단계별 대응 역량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분야의 최상위 종합평가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의 책임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재난관리평가는 지난해 시행한 재난안전관리 6개 분야(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가감점)에 대한

실적을 중앙재난관리평가단, 민간전문가의 심사와 국민 참여를 거쳐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조성 ▲민관 협력 예방체계(민생안전회의의 유관기관장 합동순찰 등) 구축 ▲취약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 강화 ▲자연재난 대비실태 점검 ▲재난대비 훈련 실적 ▲집중안전점검 기관장 참여 등 예방과 현장성, 대응성 등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3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재난관리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안산시가 일상이 안전한 도시임을 대외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라며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복합적인 재난에 철저히 대비, 시스템을 갖춘 대응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일동 상록어린이도서관 별동 개관 남녀노소 열린 공간

안산시는 지난 23일 상록구 일동 상록어린이도서관(구통체육관로 45 소재) 별동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아우름 퀘넷의 현악 4중주 기념 연주를 시작으로 ▲경과 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안내 등의 기념행사와 페이스페인팅 등의 부대 행사가 진행됐다.

상록어린이도서관 별동은 일동도서관 폐관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문화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상 2층, 연 면적 607.80

m² 규모로 조성됐으며, ▲그림책놀이터 ▲북스타트실 ▲학습공간 ▲미디어창작실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북스타트 프로그램과 견학프로그램 등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과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교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개관식 이후 추가적인 내부 정비를 거친 뒤 내년 1월경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며, 휴관일은 매주 금요일과 법정공휴일이다.

이민근 시장은 “공공도서관 부재로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일동 지역에 아이들뿐 아니라 청소년,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마련됐다”라며 “상록어린이도서관 별동이 일상 속에서 편히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한 휴식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jdujdu000@nate.com

양문석 의원, 가짜뉴스·금융사기 예방노인 디지털 문해교육 법적 근거 마련

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세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짜뉴스와 디지털 금융사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갑·사천)은 16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과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는 노인세대에게도 중요한 정보 습득과 사회적 소통 수단이 되고 있다. 실제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이용도 다른 연령대 못지않게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적 고립이 심할수록 스마트

폰 의존과 중독 위험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나 가짜뉴스로 오히려 삶의 질과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교육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미디어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콘텐츠 이해 및 비판 능력 강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와 소통 능력 향상 ▲디지털 금융사기·허위정보 등 역기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 등을 교육 내용으로 명시했다. 양문석 의원은 “디지털 미디어는 노인세대에게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창구이자 동시에 큰 위험 요인”이라며 “노인 디지털 문해 교육을 통해 가짜뉴스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고립을 줄이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현혈 장려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실무부서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현혈문화 방안 모색

안산시의회 최찬규 시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23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현혈 장려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산시 상록수, 단원보건소와 한마음혈액원 등 총 12명이 참석하였고, 최근 현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안산시가 현혈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대한적십자사가 발간한 혈액사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현혈 건수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실제 현혈에 참여하는 인원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평균 현혈률은 전국 평균 대비 3.9%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는 현혈을 한 안산시

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 또는 안산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규정과 임시 현혈장소 설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최찬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실제 현혈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우려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현혈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현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최찬규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민의 제안이 계기가 되어 추진하게 되었다.”며 “현혈은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치 있는 행동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현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은미 의원, 도서지역 직계가족 여객선 요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

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로서,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소멸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민·관 협력으로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 지원 확대

안산시는 지난 19일 사회적기업 언론사 맘스커리어와 관내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세 자녀 이상 가정 출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맘스커리어는 내년 1

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1년간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더블하트’의 출산 축하 박스를 무상 제공한다. 출산축하박스에는 젖병 등 수유용품을 비롯해 위생용품 등 출산 초기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17만 원 상당의 기본 육아용품이 포함돼 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그동안 다

자녀·출산 가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인 만큼,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jdjudu000@nate.com



구봉도앞 명품 바다뷰

- ◆ 탁 트인 바다뷰 ◆ 시원한 술발정원
- ◆ 운치있는 야외테라스 ◆ 반려동물 놀이터
- ◆ 최근 주방시설 및 인테리어 완비

* 70평 1층 식당

* 시설비 2,000만원

* 보증금 3,000만원 / 월 250만원

* 전전세 잔여기간 39개월

김선중 공인중개사 ☎ 010-3199-4992

위드삭소, 주민과 함께한 송년 위로 연주 잔치 열어

대부남동 노을지기펜션에서
19일 수강생, 주민과 함께

대부문화센터에서 색소폰 강습을 받고 있는 동아리 ‘위드삭소’가 지난 12월 19일 오후 5시부터 대부남동 노을지기펜션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송년 위로 연주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부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대부문화센터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연주 실력을 선보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주회는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색소폰 공연을 중심으로 푸짐한 먹거리와 노래자랑이 곁들여져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주민들은 연주에 박수를 보내며 따뜻한 연말의 정을 나눴다.

하정호 강사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위드삭소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많은 분들과 함



대부문화센터에서 색소폰 강습을 받고 있는 동아리 ‘위드삭소’가 지난 12월 19일 오후 5시부터 대부남동 노을지기펜션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송년 위로 연주 잔치를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께 연주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위드삭소는 2026년도에도 매

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대부문화센터에서 정기 강습을 이어갈 예정이며, 내년 봄부터는 찾아가는 봉사 연주를 목표로 겨울 동안 집

중 연습에 들어간다. 강습을 희망하는 주민은 대부동행정복지센터나 하정호 강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파크골프협회 포도클럽, 임시총회 겸 송년회 개최

안산시파크골프협회 포도클럽(클럽장 박상규)은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화정식당에서 임시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칙 제정과 회원 소개, 임원 구성 등 클럽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순서로 진행됐다.

임원진은 클럽장 박상규, 총무 서순애, 재무 장순옥, 감사 000이 선임됐다. 전 클럽장 윤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돼 클럽 운영에 힘을 보태게 됐다.

박상규 클럽장은 인사말에서 “회원

들이 똘똘 뭉쳐 함께 성장하는 클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클럽장과 힘을 합쳐 훌륭한 포도클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장 고문은 “내년에는 클럽이 더욱 활성화돼 최고의 파크골프 클럽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2026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봄·가을철 원정경기와 지방 교류 활동을 추진해 파크골프와 힐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회원들의 기대를 모았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파크골프협회 포도클럽이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화정식당에서 임시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열어

안산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대표 해양치유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안산시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경기도, 안산시의회, 한국농어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치유지구 지정(안) 및 해양치유 거점 조성을 위한 해양치유센터(안)에 대해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공유했다.

해양치유지구는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수도권 최고 수준의 연안과 해양 생태환경을 보유한 구봉도 및 방어머리 해변 등을 해양치유지구

의 최적으로 판단, 차별화된 수도권 일일 힐링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수도권 배후 2,500만 명의 풍부한 잠재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한 대부도는 해양치유산업 조성을 통해 관광객 수요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해양수산부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

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센터 건립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의 해양치유 산업을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삼아, 치유 센터 조성·체형 프로그램 개발, 민간 협력 등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市, 풍도 바람꽃, 관광안내소 개소… 섬 관광 인프라 확대

안산시는 풍도관광안내센터(단원구 풍도동 소재)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풍도 바람꽃, 관광안내소’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관광안내소는 풍도를 찾는 여행객과 주민을 위한 관광 거점 공간이다.

시는 풍도 특산품 판매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공간을 활용해 풍도관광안내센터 조성 사업을 마쳤다. 공간에

는 ▲주민 휴게공간 ▲풍도의 역사와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전시월과 전시대 등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새롭게 마련된 관광안내소에서 풍도의 문화와 자연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안산시 주요 관광 정보를 담은 영상과 시정 홍보 영상을 상시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풍도 등대를 리모델링

해 ‘풍도섬 포토존’을 새롭게 조성하고,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풍도 관광 안내판과 야생화단지 이정표도 추가 설치했다.

야생화단지 이정표의 경우 봄철 풍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야생화를 한층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야생화의 천국’ 풍도의 매력을 한층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풍도 관광안내센터 준공으로 주민과 여행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풍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섬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협동조합, 19개 마을 순회하며 현장 소통 강화



대부도협동조합이 지난 16일 종현마을을 시작으로 마을순회 사업설명회를 본격화하고 있다. 내년 2월 5일까지 19개 마을을 차례로 순회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대부도협동조합(이사장 양운영)이 지난 16일 종현마을을 시작으로 마을순회 사업설명회를 본격화했다.

이번 설명회는 종현마을을 첫 일정으로 삼아, 연말 각 마을 총회와 행사 일정에 맞춰 대부도 내 19개 마을을 차례로 방문하며 진행된다.

조합은 2026년 2월 5일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 조합의 주요 성과와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방향과 비전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시경 전무이사는 “마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홍보와 참여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합은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상생의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해양보호구역 정책 성과 점검 및 내년도 계획 논의



안산시는 지난 23일 대부해양본부 회의실에서 ‘제2회 안산시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병구(사진 왼쪽) 대부해양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는 지난 23일 대부해양본부 회의실에서 ‘제2회 안산시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 주재 아래 어업인 대표, 관계 행정기관, 수산 분야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 해안가 쓰레기 정화 추진 사업 등 시가 추진했던 해양환경 정책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와 함께 내년도 해양환경 정책분야 사업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시는 올해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 운영 및 홍보물 제작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해양 보호구역 관

리 체계를 강화하고, 습지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경관부지를 매입한 바 있다. 또한, 지속적인 해안가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약 327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깨끗한 해안가를 만들어가고 있다.

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현장 중심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해양환경 정책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은 “해양보호구역은 안산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해양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빛하나봉사회, 꺼지지 않는 나눔의 불빛으로 이웃을 밝히다

“우리의 빛은 활활 타오른다” 빛하나봉사회 따뜻한 동행

빛하나봉사회가 12월23일 호수동 소재 종구면 한정식에서 2025년도 송년회를 갖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알차게 준비하기로 다짐했다.

빛하나봉사회(회장 박보성)는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는 봉사단체다. 박보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반갑다”며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봉사회는 하늘이 돕는 단체다. 된장과 고추장 사업을 펼쳐 얻은 이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데, 담그는 날마다 날씨가 좋아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된장·고추장 사업을 더 확대해 더 많은 이웃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우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차상위계층은 더 어렵다”며 “빛하나봉사회의 빛은 꺼지지 않고 앞으로 더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빛하나봉사회가 12월23일 호수동 소재 종구면 한정식에서 2025년도 송년회를 갖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알차게 준비하기로 다짐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강조해 회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날 회원 이기연 씨는 시낭송을 겸한 인사말로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며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회원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5년을 정리하고, 2026년

병오년 붉은 말띠를 희망과 도약의 해로 함께 그렸다.

한편 빛하나봉사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10여 가구를 발굴해 매월 생활용품을 직접 구매·전달하며 1년 동안 꾸준히 지원하는 봉사

단체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 가정을 선정하면 최소 1년간 지속적으로 돕는 원칙을 지켜오며, 책임 있는 나눔 실천으로 타 봉사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장애인파크골프 자이언트클럽, 송년 라운딩으로 화합 다져

안산시장애인파크골프 자이언트클럽(클럽장 박상초)은 23일 능안운동장 내 파크골프장에서 송년회 겸 라운딩을 열고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현재 회원은 17명으로, 클럽은 더 많은 장애인이 함께하길 바라고 있으나 장애 등급에 따른 가입 조건과 개인의 참여 의지가 필요해 회원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박상초 클럽장은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파크골프 선수로,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국

제대회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박 클럽장은 “파크골프는 건강은 물론 마음까지 넓어지게 한다”며 “집에만 머물지 말고 운동장으로 나와 함께 즐기며 활력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안산시장애인파크골프 자이언트클럽은 23일 능안운동장 내 파크골프장에서 송년회 겸 라운딩을 열고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관광안내소 내 기념품샵 운영... 상품 개발해 판매



대부도 관광안내소 내 기념품샵 전경.

윤성용 기자

안산시는 대부도 관광안내소 내에 관광 기념품샵을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관광 기념 상품개발을 통해 판매에 나서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안산만의 특색

있는 기념품을 고유 상품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을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관광기념품샵은 안산시관광협의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대부도 관광안내소 공간을 활용해 별도의 공간 확

보나 인력 배치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운영비 절감은 물론, 실질적인 관광 홍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하는 기념품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시 소재 공예가와 소상공인들의 작품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광안내소에는 ▲주요 관광지 할인 쿠폰 ▲홍보 리플릿 ▲‘그랑꼬또 와인’ ▲대부김, 새우, 소금 등 지역 특산물 홍보 콘텐츠도 함께 비치해 관광객의 소비와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기념품샵 운영을 점차 확대해 나가며, 안산시 관광 브랜드 강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대상 졸업시험 실시

국가시험 대비 핵심 역량 종합 점검 차원에서 마련

안산대학교간호학과는 지난 12월 12일 성실관에서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시험은 간호학과 교육과정 이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전문 지식과 임상 판단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은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

학,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보건의 약관계법규 등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를 반영한 주요 영역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가시험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했다.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김민경 학과장은 “졸업시험은 단순한 학업 평가를 넘어, 예비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책임감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국가시험 준비에 더

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동안 학습한 전공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국가시험을 앞두고 현재 자신의 학습 수준을 점검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산대학교 간호학과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졸업시험 운영과 국가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적응력이 높은 간호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인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市, 주차장 빈자리 내비게이션으로 안내... 현대오토에버와 협업



이민근 안산시청(왼쪽 두번째)이 22일 안산시청에서 서동권 현대오토에버 내비게이션사업부 사업부장(오른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과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 안내 시범사업 논의의 일환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내비게이션 연계 스마트 주차 안내 사업 맞손 시범 사업 거쳐 상용화

안산시가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관내 주차장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운전자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검색하면 주차장 빈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는 지난 22일 안산시청에서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내비게이션 연계 공영주차장 스마트 안내 시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현대오토에버 주차장 서비스 소개 ▲공영주차장 주차 데이터 수집 및 연계 방식 설정 ▲시범 사업 대상 주차장 선정 ▲운영 및 관리 방안 ▲향후 업무 협약 및 서비스 확대 가능성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 안내 시범 사업은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위치는 물론,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는 모델이다. 이를 통

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주차가 가능해지고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시는 시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대오토에버와의 행정·기술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공영주차장 운영 데이터 제공 ▲현장 실증 협조 ▲시범 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거쳐 서비스 확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모빌리티 데이터와 내비게이션 기술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안산시와의 협력에서 얻은 실증 모델을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스마트 주차 서비스가 도입되면 도심 내 주차 혼잡이 크게 줄고, 불필요한 순환 주행 감소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며 탄소 배출 저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시장은 이어 “앞으로 현대오토에버 등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주차·교통 분야를 넘어 스마트시티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 시민 중심의 미래형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반월동 통장협의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상록구 반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반월동 통장협의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반월동 통장협의회 통장들이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중열 반월동 통장협의회장은 “이번 성금이 비록 작은 마음이지만 소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공업고, 부곡동에 전한 128만원의 따뜻한 마음



상록구 부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안산공업고등학교로부터 관내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28만원을 기탁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안산공업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열린 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물품과 먹거리를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따뜻한 뜻이 담겼다. 전달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안산공업고등학교는 매년 꾸준한

정희재 기자

여의도순복음신안산교회, 선부2동에 라면 기탁



단원구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여의도순복음신안산교회로부터 다양한 식료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희망박스 60개와 라면 3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여의도순복음신안산교회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 후원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김, 카레, 미역국 등 간편식이 담긴 희망박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마웅갑 담임목사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

윤성용 기자

(주)제이앤씨컴, 원곡동에 현금 500만원 후원



단원구 원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주)제이앤씨컴(대표이사 유선중) 임직원들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후원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주)제이앤씨컴은 원곡동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금 후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자체적으로 모금운동을 펼쳐 임직원들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500만원을 모금했다고 한다.

유선중 대표이사는 “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건강한 기반

정다운 기자 jdju000@nate.com

푸른숲속어린이집, 일동에 김세트 기탁



상록구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푸른숲속어린이집(원장 김미자)으로부터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김 36세트(1세트 27봉)를 기탁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원아 15명이 동행해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으며, 기탁된 조미김은 학부모와 원생들이 함께 참여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구매한 물품이며, 관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미자 푸른숲속어린이집 원장은 “

윤성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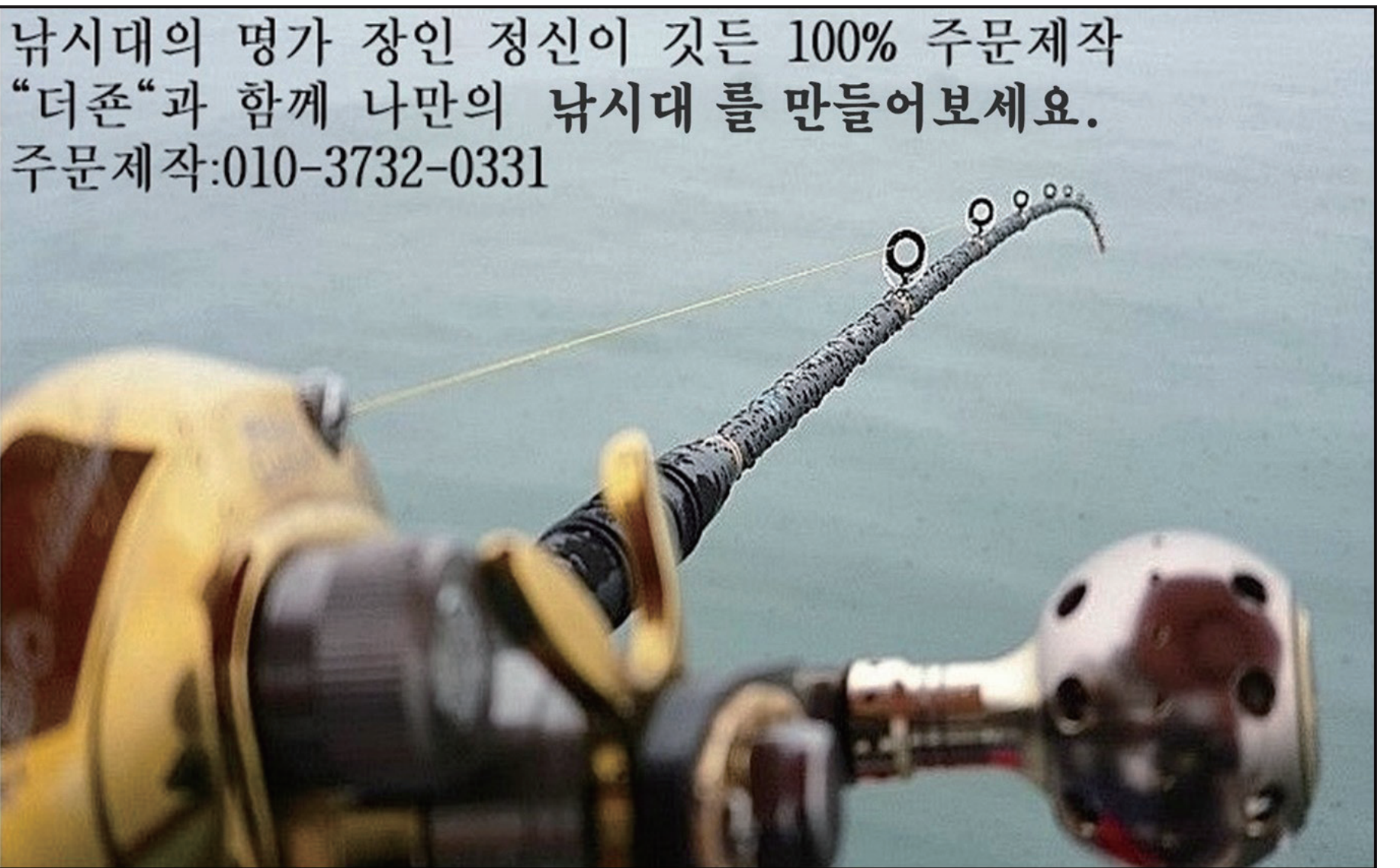
안산진흥초, 호수동에 이웃사랑 후원물품 기탁



단원구 호수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안산진흥초등학교로부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물품(라면, 즉석밥)을 기탁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후원물품은 지난 23일 안산진흥초등학교 5·6학년 전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안산진흥초등학교는 지난해와 올해 초에 이어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

정다운 기자 jdju000@nate.com





법률사무소 화쟁
PARK & KIM LAW OFFICE

깊이 듣고, 끝까지 함께 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박태훈 대표변호사

연락처 : 010 - 7929 - 8012

약력 및 경력

現) 법률사무소 화쟁 대표변호사
現)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고문변호사
現) 경기도 운수연수원 외 다수법인체 법률고문변호사
現)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경기도 경찰청 민간교통심사위원회 위원장
前)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前)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前)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前) KT 고문변호사
前) 서울마주협회 고문변호사
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상임이사 및 24회 동창회장
前)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지역부총재, 법제위원장, 감사
前)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및 법과대학 상임이사

변호(담당) 전문 분야

- ◆ 형사 소송
 - ▶ 성범죄(강제추행, 유사강간등) 명예훼손(사자) 및 모욕
 - ▶ 강력범죄(상해, 폭행치상), 재산범죄(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등)
 - ▶ 학교폭력(정보망 허위사실유포 등) 및 중대재해법(기업 및 법인 포함)
 - ▶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 음주운전) 사건-해양포함
- ◆ 형사 소송
 - ▶ 대여금반환청구,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
 - ▶ 가압류가처분, 각종 기업소송 및 자문
 - ▶ 중대 교통사고(손해사정)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물·인적)
 - ※ 운전자보험(변호사 방어비용 선임) 및 면허행정소송 등
- ◆ 행정 소송
 -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감액), 면접교섭변경신청,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 ▶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자문
 - ▶ 공무원행정소송 등

광 고 문 의

032 - 880 - 9994 dj250407@naver.com

대부도저널

프리미엄 선물용 타올

맞춤제작, 로고자수, 감성포장
KC인증/OEKO-TEX 1등급, 유아안전인증

1. 행사 답례품: 기업, 관공서, 학교, 교회
2. 숙박업 호텔 리조트용, 가정 생활용

J&CROSS 대표 최재원 M:010.7259.2177

*** 전원주택 매매 물건 찾습니다 ***

 **김선중** 공인중개사
전원주택 전문매매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32 (대부남동)

준공 5년 이내 신축
대지 150평 내외, 건물 30평 내외, 방3개
연락을 기다립니다.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수영복 · 수영용품 · 헬스복 · 헬스용품

웨이브핏

대표 : 강일구 연락처 : 010-6800-1909
경기 시흥시 거북섬중앙로 1, 2동 2층 239호
매장 운영시간 : 화~일 09:00 ~ 19:00

대부도핫플
오션뷰 브런치카페
카캉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길로 1501-1

히든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아테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씀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욱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선재낙시공원
조부형 T. 032-710-4340

대부도 바움펜션
황진 M. 010-7741-1150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2(대부남동), 202호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K3 바다낙시터
최병희 T. 032-885-52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용담바다낙시터
오준태 T. 032-886-8969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낙시터

등대바다낙시터
이한중 T. 0507.1331-134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웅진군 ‘자월달빛 천문과학관’ 개관식 개최

지역 사회의 과학 교육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 마련

웅진군은 지난 23일, 자월도에서 자월달빛 천문과학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문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 후 총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여 급근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1단계 천문카페 건립에 25억원, 2단계 천문공원내 산책로 및 야영장 조성에 2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3단계 마지막 자월달빛 천문과학관은 총사업비 55억의 재원으로 24년 8월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도 23일 개관에 이르게 되었다.

었다.

자월 천문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자월달빛 천문과학관은 천체 관측 및 교육 프로그램과 탐방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며 자월달빛 천문과학관 옆에 천문카페가 자리잡고 있어 방문객의 ‘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천문과학관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적,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천문과학관이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웅진군은 지난 23일, 자월도에서 자월달빛 천문과학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윤성용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웅진군지회 탄소중립 실천 문화 캠페인사업 추진

한국자유총연맹인천웅진군지회(회장 황경연)는 지난 12월 23일 영흥면 내6리 경로당과 장경리, 십리포 일대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원들은 현수막과 홍보물을 활용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분리배출 생활화 등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알리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황경연 회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탄소중립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만큼, 오늘 캠페인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환경 보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웅진군지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웅진군지회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과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웅진군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 자월도 힐링꽃섬 조성사업 추진



웅진군은 지난 23일, 자월면 자월 면사무소 뒤편 입아에서 자월도 힐링꽃섬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정희재 기자

웅진군은 지난 23일, 자월면 자월 면사무소 뒤편 입아에서 자월도 힐링꽃섬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월도 힐링꽃섬은 지난 6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약 100억 원을 투자하여

20ha 규모의 지방정원을 202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힐링꽃섬 자월도’는 바다를 보며 다양한 계절조화와 야생화를 즐기고 산책하며 힐링할 수 있는 특색있는 지방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산림관광 브랜드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웅진군수는 이날 기공식에서 “자월도가 가진 천혜의 도서 자연경관을 활용한 명품 꽃섬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주) 백령도연합상공인 “지역사회 복지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식회사 백령도연합상공인(이하 백령홈마트, 대표 박충희)과 백령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명자)은 지난 18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물류 접근성이 제한적인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상공인과 복지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복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복지관은 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역상공인을 통해 연계하고, 백령홈마트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자원이 지역 주민에게 다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장명자 관장은 “이번 협약은 도서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역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지역사회

자월면 유휴부지에 마련된 공공목욕탕 준공식 개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기대

웅진군은 지난 23일 자월면 자월리 1095-1번지 일원에서 자월면 공공목욕탕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문경복 웅진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축하하는 준공식 자리가 되었다.

이번에 준공한 자월면 공공목욕탕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건립됐다. 2024년 8월 착공을 시작으로

연면적 375.12㎡, 지상1층 규모로 2025년 8월에 시설공사를 마쳤으며, 이후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충분한 시험가동과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쳤다.

자월면 주민들은 “그동안 목욕을 하려면 배를타고 육지에 나가서 하루를 보내야 했는데 마을 가까이 이런 공공목욕탕이 생겨 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입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jdujdu000@nate.com

와 상생하는 복지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충희 대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

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올 한 해도 고객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 사도 횃집 -

오션뷰와 낭만적인 낙조전망을 감상하며 먹을 수 있는
신선한 각종 해산물 요리

최고의 맛과 솜씨를 자랑하는 사도횃집 사도조개구이
여러분의 즐거운 송년회는 사도횃집에서 모시겠습니다.

주소
단원구 대부황금로 1479

예약가능
☎ 0507-1420-4424

| 신년특집 |

2025년 10대뉴스

2025.12.08 ... 닥터헬기보다 시급한 대부도의 현실, 119구급차 증차

대부도는 안산시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넓은 지역이지만 대부119 안전센터에 배치된 구급차는 단 한 대뿐이다.

병·의원이 없어 응급환자 발생 시 장거리 이송이 잦아, 구급차가 출동 중이면 다른 환자는 자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현장에서는 헬기장 논의보다 최소 1대 이상의 구급차 증차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5.11.03 ... “대부파크골프장, 안산시 인구유입의 효자 역할 기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대부파크골프장은 18홀 규모로 조성돼 주민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운영되며, 주말마다 인근 도시 이용객이 몰리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약 200명의 주민이 정기 이용 중이며, 파크골프를 위해

전입을 고려하는 외지인도 늘어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임시시설인 만큼 정식 인허가를 거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5.09.15 ... 대부도 고도제한 기존 40m에서 50m로 상향

안산시의회는 대부도 임야 고도제한을 기존 40m에서 최대 50m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40m까지는 행위허가가 자유로우며, 40~50m 구간은 도

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난개발을 방지한다. 민주당은 개발 완화와 환경 보전을 병행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2025.08.25 ... 주말마다 ‘교통지옥’...대부도 교통정체 해법은 무엇인가?



주말마다 반복되는 대부도 교통정체 문제를 3회 기획으로 진단한다. 1편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비해 협소한 도로 구조와 병목 구간을 점검하고, 2편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신

설·확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핀다. 마지막 편에서는 단기 교통관리부터 중장기 도로 확충까지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 대부도 교통난의 출구를 모색한다.

2025.06.09 ...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안산시는 대부동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개발에 나선다. 인구를 단계적으로 1만5천명, 3만명, 5만명까지 늘려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면 교육·의료·금융시설 확충과 도로 및 교통 인프라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기획은 성장관리계획의 의미와 수해 지역, 대부도의 미래상을 3회에 걸쳐 조명한다.

2025.07.07 ... ‘대부도주민 절반이 아직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실태’

대부도 주민 5,500세대 중 3,000여 세대, 약 56%가 아직도 수돗물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대부도의 현실이다. 대부도저널은 주민 모두가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을 목표로, 지하수 사용 실태와 원인, 해결책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2025.06.02 ... 대부초, 대남초, 대동초 등 3개초 2029년 3월 통폐합



대부도 대부초·대남초·대동초 3개 초등학교가 2029년 3월 통폐합된다.

취학아동 수 급감으로 학부모들도 통폐합을 원하는 상

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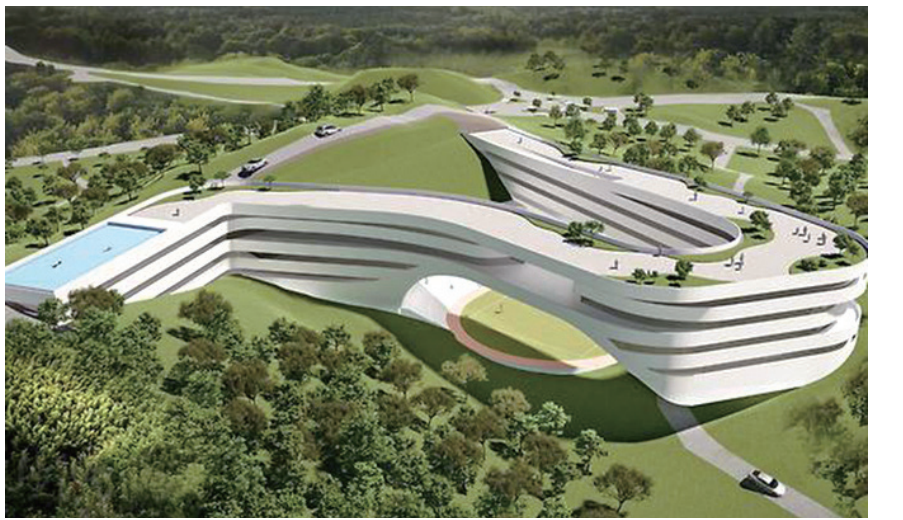
지역구 박해철 국회의원은 학생·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6 ... 대부도에 (가칭)경기안산1교, 8월 첫삽 2028년도 개교목표

안산시의회는 대부도 임야 고도제한을 기존 40m에서 최대 50m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40m까지는 행위허가가 자유로우며, 40~50m 구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난개발을 방지한다.

민주당은 개발 완화와 환경 보전을 병행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2025.05.19 ... 대부도 파크골프장 생활체육시설로 인정받나?

박해철 국회의원이 대부도 파크골프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간척지 규제로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이 어려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통과 시 파크골프장에 대한 지자체·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5.04.07 ... 대부동행정타운 건립... 빠른 추진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보류

대부도 행정타운 건립이 상동 주민 반대로 장기간 표류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반대 측은 부지를 대부해양본부 인근으로 옮길 경우 거리 문제와 상동 공동화를 우려하고, 찬성 측은 공동화는 대책으로 막을 수 있다며 대부도의 미래를 고려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섬 『대부도 지명 이야기』 11회 대부도 사람들의 생활사에 재앙(災殃)이 된 시화방조제 건설(중)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부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갯벌은 원형을 보전하는 것이 최선의 활성화 사업이다. 대부도 연안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분이 풍부하고 우수한 세계 5대 갯벌에 포함된다. 갯벌이 왕성한 작용을 하려면 바닷물이 자연적으로 섬 주변을 돌면서 갯벌을 일구고 산소 공급을 해 주어야 한다. 세계에서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대부도 주변 해역은 이러한 자연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대부도 연안 주민들에게 많은 소득원을 안겨, 예로부터 부자(富者)섬이란 별명도 얻었지만, 시화방조제 건설 이후 전원주택, 펜션, 주말농장, 상가 등의 용도로 전체 토지의 약 44%가 외지인들에게 매각되는 등 부자(富者)섬의 명성을 잃은 지 30년이 넘었다.

2013년 서울과학기술대학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는 수산물 생산과 서식처 제공 및 수질 정화 기능 등 1㎢당 연간 63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보인다고 하였다. 영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대부도 주변 갯바탕과 시화·대선·불도·탄도방조제 지도〉

국 네이처지에 따르면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1ha당 약 9,900달러로, 농경지 92달러보다 100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어류와 어패류의 산란과 서식지로 어업의 약 90%가 연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시화방조제 건설 전에는 수도권에 바지락칼국수집이 많았는데 방조제 완공 후에는 거의 없어져 수도권의 음식문화까지 변화시켰다. 그만큼 대부도 주변의 갯벌에서 생산된 어패류 수확량은 엄청났다. 또한 대부도 연안은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에 위치하여 오염물질 정화와 탄소의 흡수·

저장으로 기후변화 측면에서 반드시 원상복구 방안을 찾아 환원시켜야 한다.

지도를 보면 대부도에서 오이도까지 시화방조제 하나만 건설된 것이 아니다. 대부도와 선감도 사이의 대선방조제, 선감도-불도-탄도 3개 섬을 잇는 불도방조제, 탄도와 고령을 이은 탄도방조제 등 7개의 섬을 이은 6개의 방조제가 건설되었다.

시화방조제를 비롯한 6개 방조제 건설에 그 많은 혈세를 투입하여 오이도에서 서신면 고령까지 30km 중 약 14km, 탄도-외지섬-방아머리까지 약 17km, 형도-어섬-고령까지 약 11km 계 42km(105리)에 방조제를 건설하면서 천혜의 황금어장이 없어졌다. 만약 시흥시 오이도와 화성시 우음도까지 약 6.6km에 시화방조제를 건설하였으면, 길이도 1/2밖에 안 되고 바다가 깊지 않아 공사비도 반감하였을 것이다. 대부도까지 방조제를 건설한 이유는 대부도 연안의 '수자원인 바닷물을 오염시킨' 수자원공사, '어촌 일지리를 없애버린' 농어촌진흥공사, '공사비가 증가하게 설계와 시공을 한' 현대건설이 돈벌이에

만 혈안이 된 탓 때문이었다.

대부도 사람들은 갯벌을 '갯바탕'이라 하는데, 굴을 파고 조개와 낙지를 잡던 굴밭과 모래갯벌은 조류의 흐름이 차단되어 진흙갯벌이 1~6m 높이로 쌓이면서 삶의 터전은 사라지고 말았다. 오이도에서 우음도까지 방조제를 건설하고, 공단과 신도시를 조성하였으면, 형도, 마산포와 어섬, 탄도, 불도, 선감도, 대부도, 쌍섬, 고령 주변의 황금어장은 보전되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화호 오염수 정화에 투입된 예산 1조원의 반의반으로 나래휴게소에서 형도까지 약 4km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방아머리·대선·불도·탄도 방조제를 개방하면 된다. 흙과 돌은 대송습지의 방조제 철거 공사와 동시에 방조제를 쌓으면 충분하다. 대부도·선감도·탄도·불도·마산포·어섬 연안 갯벌 회복은 경기만의 수백㎢ 연안에서 엄청난 수산물 생산과 어민 일자리 증가, 갯벌의 환경정화 작용, 관광자원 제공이라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세계 5대 갯벌의 대표적 오염 사례로 세계 환경학자들의 비난과 조롱거리였던 시화호 주변을 복원하여 바닷

데스크 칼럼

침체의 끝자락에서... 대부동 경제, 내년 반등의 신호를 읽다



김태창
편집국장

안산시 대부동 지역경제가 긴 침체의 터널을 지나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광객 감소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며 자영업자와 주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팍팍하지만, 내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함께 묻어난다.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현재 대부동 경제는 계엄 이전과 비교해 체감상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말에도 한산한 거리, 줄어든 숙박 예약률,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상인들의 한숨이 지역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비관만이 지배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가장 큰 기대 요인은 새 정부 예산의 상반기 집중 집행 전망이다. 공공사업과 재정 지출이 일정 부분 지역으로 흘러들 경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비 심리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한동안 중단됐던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 가능성도 지역 상권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역화폐는 대형 호재는 아니더라도, 침체된 골목상권에 즉각적인 숨통을 틔워

주는 현실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아 왔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아직 거래가 본격화됐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거의 끊기다시피했던 매물 문의가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이는 실물 경기 회복보다는 '심리'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부동산은 늘 기대와 전망을 선반영하는 시장이다. 거래보다 문의가 늘었다는 사실 자체가 "바닥은 지났을지 모른다"는 인식이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 주목할 변수는 내년 예정된 지방선거다.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SOC 확충, 관광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이 공론화된다면 대부동이 다시 정책의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 물론 선거용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논의 자체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

대부동 경제의 내년 전망은 분명 '기대와 과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있다. 예산 집행과 정책 효과, 관광 회복이라는 외부 요인만을 기다리기에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완전히 얼어붙었던 분위기 속에서 다시 움직이려는 미세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침체의 끝자락에서 대부동이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을지, 2026년은 그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물이 유통된다면 세계적인 환경 복원 사례가 될 것이다. 그로 인한 탄소의 흡수·저장, 오염수와 갯벌 정화, 어패류 생산과 일자리 창출, 해양환경 복

원 연구,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등의 효과는 투입비용 대비 훨씬 많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

〈다음호 계속〉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대부도 수제포도와인 · 포도즙

우리랑

자연으로 빛은 건강한 한 잔

추억의 자연상회와 함께 하는 특별한 순간



자연 발효로 빛은 15년의 정성
안상의 자랑 대부도 수제 포도와인

우리랑